
교육실습소감문



소속대학	성균관대학교	소속학과	컴퓨터교육과
학번		이 름	
실습학교		실습과목	수 학

3월 28일~4월 22일. 긴장감으로 시작하여 아쉬움으로 끝난 4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이하 한대부고)에 첫발을 내딛었던 3월 28일이 생생히 기억난다. 고등학교 시절 3년을 보낸 익숙한 곳이었는데, '학생 신분'으로 '등교'가 아닌 '교생'으로서 '출근'을 하니 매우 어색하였다. 월요일 1교시는 전체 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에 교생을 소개하였다. 모교라 아는 선생님도 많고 익숙했는데도 너무 긴장하여 내 차례가 되어서는 머리가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사만 하였다. 그렇게 내 소개가 지나가고, 배정된 반으로 가서 아이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한 달 동안 담당하게 된 반은 2학년 6반 문과반으로 중국어 교생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첫 만남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대부고가 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남자교생이 인기가 많았고, 여자교생은 처음에는 투명인간이었다. 우리 반 아이들 역시 담당 교생이 여자라 실망한 게 눈에 보였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우리 반은 교생이 두 명이나 들어오는데 둘 다 여자야!"하는 불평도 많이 들었다. 여학생 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이러리라 예상은 하고 갔지만 그래도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서운하다가도 '그래. 그 나이 때에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서운함을 떨쳐버리고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였다.

정규 선생님이 아니라, 교생이라는 입장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초기에는 매우 힘든 요소였다. 학교라는 내적 집단에서, 일정 배타성을 유지한 채 거리감을 두는 학생들에게 먼저 선뜻 다가서서 친해지고, 무언가를 정해진 시간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든 작업이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같이 활동하고, 학창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 공통점을 찾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수업에 있어서 재미있게 가르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했다. 또 수학 담당이라 타 교과에 비해 시수가 많아 자주 교실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 청소시간, 쉬는 시간에 토크를 얘기하다 보니 그 결과, 첫째 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학생들이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결국 마지막 주차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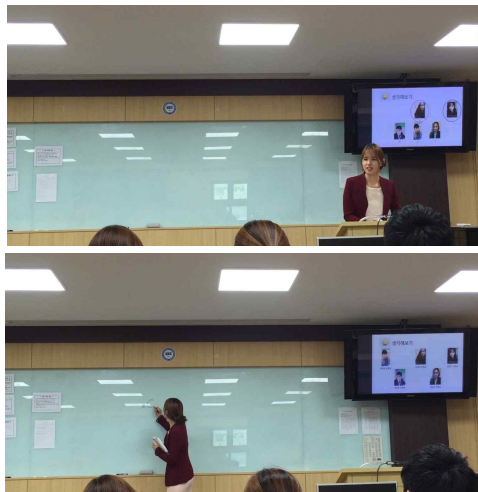


교생 첫 주차에 가장 큰 과제는 학생들 이름을 외우는 것이었다. 내가 담당했던 6반은 여학생 26명, 남학생 7명으로 총 33명으로, 이 중에서 수가 적은 남학생은 비교적 이름을 빨리 외웠는데 26명의 여학생 이름을 외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초기에 아이들이 계속 "제 이름은 뭐게요?" "선생님 저 누구게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많이 틀렸다. 사춘기 때는 별거 아닌 일로도 서운한데, 이름을 계속 틀려서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나중에 받은 편지에 이름을 외워서 처음으로 불러줬을 때 감동이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외워줬다는 거 하나에 울고 웃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었고, 더 빨리 더 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외워서 불러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담임 반외에도 수업 들어가는 반 학생들 이름을 외워서든 명찰을 보고서든 불러주면 아이

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이름을 외워 불러주는 것이 친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교육실습에서 만난 인연은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한대부고는 한양대 부속고등학교라 한대부고로 교육실습을 나오자하는 한양대생을 대부분 받아주기 때문에, 주로 모교생만 받는 다른 학교에 비해 교생 인원이 많다. 이번 교생도 나를 포함하여 총 32명으로, 31명의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과목으로, 각자 목표한 바가 다른 31명의 교생들과 4주 동안 지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수업은 어떤 것일까' 등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하며 더 나은 수업,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또 즐거운 순간뿐만 아니라, 교생을 하며 힘든 시기에 서로 위로하며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대표교생으로서 힘들 때 교생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대표수업을 하는 교생에게도 많은 응원을 해주었다.

수업 얘기를 해보자면, 내가 수업을 들어간 반은 6반, 7반, 9반으로 그 중 문과인 6반은 미적분을 수업했고 이과인 7반, 9반에는 확률과 통계로 들어갔다. 처음에 실습 나가기 전에는 수업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별로 기회를 안 주시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하였다. 그런데 와보니 그런 걱정을 했던 게 부질없어질 정도로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을 맡기셨다. 4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배려해주셨다. 교생기간이 마침 시험 전주라 시험 출제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수업을 많이 하니 힘든 점도 있었는데 일단 문이과를 모두 들어가고 다른 내용을 수업하다보니 같은 내용을 여러 반에서 수업하는 교생에 비해 수업준비에 두 배 이상의 시간이 들었다. 그리고 문과의 미적분 수업 같은 경우 일주일에 수학이 5일, 즉 매일 수업이 들어서, 매일 매일 새로운 수업을 짜야했다. 다음날 새로운 수업 두 개를 준비해야 하는 날에는 잠도 거의 못 자며 수업을 준비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하나'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통해 준비해간 수업을 학생들이 재밌어하며 집중해서 들으면 매우 보람차고 뿌듯하였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아서 매 수업이 끝난 후 담당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다. 그 피드백을 잘 듣고 메모해놓았다가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3년간의 대학 교육 과정에서 교사로서 필요한 방법론적, 이론적 접근법을 많이 배웠지만, 실제 겪은 교생실습 기간 동안의 경험은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이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의의를 두고 시작했던 교생 실습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자료 제작, 수업 난이도 결정, 학생 지도 등 수업 시간 이외에 해야 할 것들이 훨씬 많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왔다. 비록 한 달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강의안과 지도안, 계획서와 수정안을 작성하며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교육을 전달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교사가 된 후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쌓이겠지만, 항상 이와 비슷한 종류의 딜레마에 고민을 하며, 24시간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니, 교사라는 직업이 절대 만만하지 않고,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힘들지만 행복했던 4주였다.